

## 고졸 니트(NEET) 청년의 ‘쉽’ 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백 윤 영

백석대학교 / 박사졸업

홍 지 선<sup>†</sup>

백석대학교 / 조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순히 쉬고 있는 고졸 니트 청년의 ‘쉽’의 체험적 의미를 드러내어 기술하고 해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대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 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인별 3회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성·공간성·시간성·관계성·사물성의 5가지 실존적 의미축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의미를 해석하였다. 다섯 가지 실존적 의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무능한 자신을 노려봄’, ‘단힌 방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나감’, ‘과거와 미래에 사느라 현재는 공백이 됨’, ‘세상이 커질수록 벌어지는 틈’, ‘나 하나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제력’이라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졸 니트 청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과 쉽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요소를 밝혀내어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에게 맞는 차별화된 심리지원과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졸 니트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방향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청년, NEET, 고졸 니트, 쉽, 해석학적 현상학

\* 본 연구는 백윤영(2023)의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졸 니트(NEET) 청년의 ‘쉽’ 경험 연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 및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홍지선,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06695)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69

Tel : 02-520-6161, E-mail : greatjoy012@b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근 한국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간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형태는 다양하다.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1년을 준비하는 ‘취준생’, 자발적으로 취업을 단념한 ‘니트족’ 등이며 이러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통적인 실업률 지표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외부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니트(NEET) 청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니트(NEET)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며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및 정착이 지연되어 사회체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의 유휴화 또는 무업상태의 현상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청년들에게 당면한 성인기이행의 어려움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문제라는 점이 점차 부각되면서, 니트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취약성과 비노동력화를 다루는 중요한 대안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OECD, 2015). 니트는 1999년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이후 다른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니트의 정의는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한국의 니트 개념은 OECD의 니트 개념을 활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에서 합의된 청년 니트의 공식적인 개념은 부재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니트 연구(남재량, 2006)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니트 청년을 일본에서 사용한 청년무업자로 정의하여 국내 니트 규모의 실태를 확인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주일간 ① 취업자가 아니면서 ② 정규 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지 않고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고 있지 않으며 ④ 배우자가 없는 ⑤ 15~34세의 청년으로 니트를 개념화 하였다. 니트 청년의 연령을 OECD나 국제기구에서는 15~24세를 기준(박미희, 2017)으로 정하는 반면, 한국의 통계 자료에서는 15~29세로 규정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34세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니트 청년의 연령에 대한 논점은 10대 청소년과 30대 초반 연령대를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이다(이로미 외, 2010). 고등학교 완전취학을 근거로 10대 청소년을 니트 범주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 기존연구들은 대체적으로 20대를 니트 연령으로 보고 있다(노혜진 외, 2019; 이민서, 김사현, 2021; 정연순 외, 2008). 또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점점 늦어지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20대 전반을 청년 연령으로 보는 것이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이후 시기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폭넓은 청년층의 복지 지원을 준거의 기준으로 하여 30대 초반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의 연령 상한선을 배제한 범위이다(김기현, 2017).

니트 청년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된 2020년에는 그 수가 163만 명까지 급증하였다(최술, 2023).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청년의 니트화(化)는 저출산, 노동공급인구 감소의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잠재적 빈곤층의 양산으로 한국 사회가 막대한 복지비용을 투입하게 되는 풀기 어려운 문제 집단으로 청년 니트를 규정하기도 한다(김유선, 2017). 하지만 청년의 니트 상태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한 개인에게 당면한 어려움이기도 하다. 발달단계상 전환기시기에 있는 청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발달과업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 한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김효정, 김봉환, 2011). 예를 들어,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인 노동시장 진입의 실패는 스트레스나 우울, 낮은 자존감, 절망감 등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니트 상태의 장기화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청년 개인의 잠재력이나 역량을 개발시키기 어려우며 무기력의 심화,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이어져 생애의 전반적인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에 비해 니트 청년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박분희 외, 2017). 국내 니트 관련 요인 연구는 주로 경제학·사회학적인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니트 청년의 심리적 요인을 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주로 자아존중감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노현주, 김운태, 2019; 이금진, 박재철, 2017). 이에 다분히 사회문제로만 치부되고 있는 니트 집단이 아닌 니트 청년이 한 개인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성인기이행의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을 직

접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청년이 니트 상태가 되는 다양한 원인과 니트의 상이성으로 인해 니트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이라는 니트의 포괄적인 개념 자체가 니트 집단 내 이질적인 특성을 존재하게 한다. 이러한 니트 내부의 이질적인 특성은 니트의 유형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니트 내부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구직 니트와 비구직 니트로 세분화한 금재호 외(2007)의 연구를 시작으로, 청년 니트를 구직/비구직 니트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는 전통적인 청년 실업자로 분류가 된다. 하지만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청년으로 분류된다. 특히 비구직 니트는 청년층 인구의 지속된 감소세와 대비되며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며 60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주목하는 니트 유형에 속한다(김종욱, 2017).

비구직 니트 청년의 주된 활동 상태는 학력별로 상이함을 보인다.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 니트의 비중이 과반을 넘어 비율이 가장 크고, 인구 구성비에서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남재량, 2012). 고졸 비구직 니트에 '재수생'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비경제활동 사유 중 '진학준비'를 제외시켜 재수생의 영향을 줄여보아도 여전히 인구대비 고졸 비구직 니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김종욱, 2017). 개인의 '주된 활동상태'를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3)에 의하면, 고졸 비구직 니트의 주된 활동 상태는 시기를 막론하고 '쉬었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 비구직 니트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활동 상태는 ‘취업준비’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비구직 니트 청년일지라도, 고교 졸업 후 니트 상태로 지내는 ‘쉬었음’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느라 경제활동을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 상태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학력별로 주된 활동 상태가 서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은 세분화된 학력 집단별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진학률이 70%에 가까운 한국사회의 독특한 상황은 니트 청년에 대한 관심이 주로 대졸 니트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또한 대학 졸업자가 니트가 되는 요인 연구(김희성, 2022; 박화춘, 문승태, 2022; 한연희, 2015)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고졸 니트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고졸 비구직 니트는 또한 고교 계열별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를 졸업한 비구직 니트의 비율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인문계열 고등학교(이하 ‘인문고’)를 졸업한 비구직 니트의 비율이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김종욱, 2017).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목표로 교육하는 특성화고와 달리 대학진학 이외의 진로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인문고 출신의 고졸 청년들은 노동시장과 사회 정착 과정에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고 청년은 특성화고 청년에 비해 취업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조한혜정,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문고 졸업 청년과 특성화고 졸업 청년에 대한 논의는 구분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실제로 인문고를 졸업한 청년들은 졸업 후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투명한 미래 조망으로 불안에 처하게 되며, 여러 이유들로 이들의 불안한 상태는 장기화 된다(김지경 외, 2013). 특히 인문고 출신의 대학 비진학자들은 졸업 후 취업이나 미래 전망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청년 니트의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정재현, 2022)는 가장 취약한 상태로 지원이 필요한 고졸 비구직 니트가 청년정책에서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들에게 심리지원이 병행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문고 졸업 후 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고졸 니트 청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대학진학 여부를 중심으로 청년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대학진학/비진학 여부를 설명하는 요인들에 집중한 채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쉬고 있는 공백기간의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영미 외, 2018; 김지경, 정윤미, 2015).

하는 일 없이 ‘쉬고 있는’ 시간은 어디까지가 노동의 시간이고, 어디부터가 자유 시간인지에 대한 경계 구분이 어려운 ‘쉽’이다. 하던 행동을 멈추고 쉬는 시기 즉, 휴식기(休息期)의 쉽은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지 중단의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니트 상태의 쉽을 노동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 또는 할 일이 없어 남는 시간으로 이해한다면, 잠이나 자고 SNS나 하면서 보내는 ‘그냥 쉰다’는 소극적 쉽의 형태로 생각 되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쉽은 양적인 시간

개념보다는 '자신의 시간의 일부를 자기가 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질적인 시간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옥진, 2007). 쉽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의 여부로 개념화하기보다 주체의 마음 상태(being)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니트 청년의 '쉽'은 각 개인에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쉽의 경험이 될 것이다.

단순히 쉬고 있는 니트 청년은 상담 현장에서 만나기 힘든 특수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쉬다가 무력한 모습으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에 오는 청년들, 취업난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급격하게 소진되어 상담을 찾아오는 청년들을 내담자로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에 비해 상담학에서는 청년 니트 문제에 아직은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해 보인다. 이것은 실제로 니트 청년이 어떤 심리적 어려움을 거쳐 니트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한계와 더불어 '내가 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보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는 청년기의 발달적 특징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이 '쉽'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신에 대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경험과 니트로 직접 살아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 가늠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패널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한 양적연구들로 니트의 규모, 니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니트 청년 발생의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금재호 외, 2007; 김범식, 장

윤희, 2020; 박미희, 2017). 이는 니트 상태의 본질에 직면하기 위한 과정적 접근이 생략되어 있는 한계를 보인다. 이질적 특성이 높은 니트 청년에게 쉬고 있는 시간인 '쉽'이 질적으로 어떤 시간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니트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이 자신의 쉽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그들의 삶의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쉽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축되어 있는 지식 또한 없다. 이에 수치화 된 니트의 실태가 아닌 니트 청년의 '쉽' 경험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니트 청년 중에서도 가장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졸 니트 청년의 '쉽'의 경험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위 학교로의 진학 또는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이면서 자신의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만들어 나가는 20대의 중요한 시기에, 단순히 쉬고 있는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인문계열 고교 졸업 후 비구직 니트 상태로 지내고 있는 청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공통된 경험의 현상 안에 내포되어 있는 '쉽'의 체험적 의미를 드러내어 기술하고 해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을 단독 연구대상으로 수행된 질적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쉬면서 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연구함으로써, 고졸 니트 청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실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고졸 니트 청년에 대한 세분화된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상담학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고졸 니트 청년의 삶의 경험은 어떠한가?’로 요약하였다.

## 방 법

본 연구는 고졸 니트 청년이 그들의 생활세계에서 ‘쉽’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쉽 경험에 담긴 본질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은 현상학에 내재된 해석적인 특성이 강조된 방법으로 연구자의 해석을 통해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van Manen, 2000). 이에 본 연구는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방법을 통해 참여자들이 ‘몸소 겪어내고 있는’ 삶의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에 담긴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의 사려 깊은 글쓰기 과정은 체험의 성질뿐 아니라 체험의 표현의 의미에 대해 통찰력 있는 기술을 시도하는 현상학적 기술(Phenomenological description)로 van Manen의 방법론의 핵심적 요소이다(van Manen, 1990/1994). 기술은 해석과 대립되는 의미로서의 기술(記述)이 아닌 해석을 포함한 기술을 의미하며, 참여자의 일상 언어에 주목하고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여 반성적이고 다각적인 사유로 본질에 근접한 현상학적 기술을 불러 모아 연구 참여자의 체험적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다.

van Manen은 본질적 주제 분석이 이루어지는 반성의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잡이로 생활세계의 다섯 가지 실존체, 즉, 체험

적 신체(신체성), 체험적 공간(공간성), 체험적 시간(시간성), 체험적 관계(관계성), 체험적 사물(사물성)을 제시하고 있다(van Manen, 2014). 본 연구에서는 van Manen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실존체를 구조화시켜 그 흐름에 맞춰 글쓰기를 시도하였으며, 고졸 니트 청년이 체험하는 삶의 의미와 본질적 주제를 해석을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 연구 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들을 통해 자료의 적절성과 충분함을 충족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 수는 학자들에 따라 1명(Dukes, 1984)에서 325명(Polkinghorne, 1989), 3명에서 10명, 5명에서 25명(Creswell, 2015/2018)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의 수가 많을 경우 분석이 피상적 수준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고, 비교적 구체적인 집단이 공유한 경험을 탐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6명 정도가 참여자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의 양도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Smith et al., 2009).

본 연구는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청년 니트 커뮤니티 플랫폼’(이하 ‘니트생활자’)을 통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연구자의 주변인으로부터 고졸 비규격 니트 청년을 추천 받아 선정하는 목적표집(purpose sampling) 방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니트생활자를 통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SNS상에 게시하였고, 모집 공고를 통해 연구 참여자로 지원한 니트 청년들 가운데 선정기준에 부합되면서 본 연구 참여에 동의

하는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첫째,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졸 청년으로, 졸업한 지 1년 이상 된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의 남녀 청년으로 한다. 단, 대학에 진학했다라도 입학 후 한 학기 안에 자퇴한 자, 인문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학력을 취득한 자도 고졸로 포함하였다. 대학진학 후 휴학 중이거나, 한 학기 이상 대학교를 다닌 후 중퇴를 한 경우 최종학력이 고졸학력일지라도 본 연구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청년 니트는 실제 니트 상태의 유입-이탈-재유입의 주기가 잦은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니트로 유입되어 1년 이상 니트 상태에 머물며 쉽의 경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취업을 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등에 통학하지 않으며, 구직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단순히 쉬고 있는 비구직 니트로 선정하였다. 군 입대 대기, 결혼 준비, 취업이나 훈련참여가 어려운 장기 건강이상, 장애 청년은 대상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참여자들

의 니트 기간은 1년부터 5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니트 기간은 연속적으로 니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으로 산정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파악한 주요정보 확인을 통해 산정한 비구직 니트 기간과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연구 자료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개인당 인터뷰 횟수를 3회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각 회당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면담 간격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3주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대상으로 9명을 섭외하였으나, 면담 진행 중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지 않는 자료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최종 6명의 참여자에게 총 18회의 반구조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에 임할 수 있는 장소와 일정을 정했다. 연구 안내문과 면담 질문을 사전에 e-mail로 참여자들에게 발송하여 각자의 체함에 대한 회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파일형태로 연구자의 외장 하드에 보관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참여자의 진술을 녹음하는 것과 더불어 비언어적 상징도 메모하여 기록에 포함하였다. 면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사항

구분	참여자	성별	연령	학력	비구직 니트 기간
1	A	남	26세	고졸	학력인정교육과정 1학기 -> 단기 아르바이트 -> 5년 이상 비구직 니트
2	B	남	22세	고졸	재수학원 2개월 -> 학력인정교육과정 1학기 -> 1년 이상 비구직 니트
3	C	남	23세	고졸	밴드활동 1년 및 단기 아르바이트 병행 -> 2년 이상 비구직 니트
4	D	여	26세	고졸	취업성공패키지 6개월 -> 단기 아르바이트 -> 5년 이상 비구직 니트
5	E	여	22세	고졸	단기아르바이트 -> 1년 이상 비구직 니트
6	F	여	24세	고졸	단기 아르바이트 -> 3년 이상 비구직 니트

표 2. 반구조화 면담 질문

면담 질문
■ 쉽기 시작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쉬면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쉬면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세요.
■ 미래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세요.
■ 쉬면서 도움이 되는 것이나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세요.

담이 끝날 때마다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확인하기 위해 힘들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진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지,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개방한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주요 질문은 표 2와 같다.

#### 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분석과정을 정립시킨 van Manen의 생활세계의 ‘실존체(existentials)’에 해당하는 신체성·시간성·공간성·관계성·사물성의 다섯 가지 실존적 의미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에서의 해석 과정은 정해진 일정한 원리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석의 과정은 ‘방법’의 문제가 아닌, 각자의 삶의 시점에서 지니고 있는 감각과 사고의 지평을 드러내는 일이며, 연구주체가 되는 현상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한 단계 초월하는 지평확대의 과정이다(유혜령, 2014). 이에 자료 분석과정은 텍스트를 다시 쓰고 반성하여 고쳐 쓰는 나선형적 순환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해가며 연구 참여자들의 체험 안에 있는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들을 복원시키기 위한 반성적 사유의 과정과 지평확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녹음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며 인터뷰한 당일 연구자가 직접 면담내용을 전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면담 노트에 연구자가 메모한 자료를 통해 녹음 상에 반영되지 못한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추가하여 생생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전사본 전체를 반복해서 읽으며 자료 행간을 읽어 특별히 의미 있게 표현된 진술문이나 주제를 드러내는 내용들에 선택적으로 밑줄을 쳤다. 이때 떠오르는 짧은 문장이나 생각, 핵심 개념들을 함께 메모하였다. (3) 분리한 텍스트를 다섯 가지 실존체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류하여 일차적인 범주를 구성하였다. (4) 연구 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세분화된 핵심 어구들을 모아 일상표현을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치며 공통된 유사성과 논리적 연관성, 적합성에 따라 범주화 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5) 전환한 의미단위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보다 상위 개념인 규명된 주제를 도출하였고 이를 다시

유형화, 군집화 하여 공통된 본질적 주제로 통합하였다.

### 연구 윤리적 고려와 타당성

본 연구는 백석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과 승인(BUIRB-202202-HR-038)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된 윤리 기준을 준수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자료 수집 내용 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자료의 처리방법에 대한 고지와 의문점이 있을 때 연구와 관련된 질문이나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측면에 기초를 두고 이를 충족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비교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맥락에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더불어 참여자들에게 분석 결과를 e-mail로 보내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니트라는 개념의 이질적 특성으로 연구 참여자 선정 시 대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1년 이상 비구직 상태의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모든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연구의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쳤으며, 동료 집단의 조언과 현상학 연구로 박사논문을 쓴 교수 2인의 자문과 객관적 점검을 받음으로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체과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이 연구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괄호 치기(bracketing)'를 통해 편견 등을 면담일지에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부터 완결될 때까지 지속하며 참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 결 과

본 연구는 van Manen이 인간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강조한 네 개의 실존체(existentials)인 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과 더불어 「Phenomenology of Practic」에서 덧붙여진 사물성(lived things; materiality)을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자료로부터 46개의 규명된 주제와 10개의 본질적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표 3과 같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무능한 자신을 노려봄

#### 잃어버린 몸의 기력(energy)과 부족한 마음의 근력(strength)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처음부터 쉬면서 지낸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교육과정이나 노동 현장에 몇 차례 참여해본다. 하지만 힘들어지면 그만두는 상황이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면서, 각자 조건과 상황은 다르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으로 쉼을 시작하게 되는 건 동일하다.

무기력한 상태가 되기는 해요. 제가 니트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늘 그랬으니

표 3. 현상학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 모음

규명된 주제	본질적 주제	핵심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된 실패로 무기력하게 들어앉아 쉬기 시작함</li> <li>■ 또다시 실패할까 두려워 시도하기를 멈춤</li> <li>■ 버텨내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이 혐오스러움</li> <li>■ 몸과 마음에 힘이 없어 계속 미루게 됨</li> <li>■ 활력과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필요함</li> <li>■ 대학이 중요해 보이지 않았음</li> <li>■ 지금 와서 생각보다 대학이 중요해보이지만 갈 자신은 없음</li> <li>■ 미완의 상태로 취업은 불가능해 보여 구직을 단념함</li> <li>■ 세상에 비춰진 자신이 비난 받는 백수 같음</li> <li>■ 스스로 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임</li> </ul>	<p>잃어버린 몸의 기력(energy)과 부족한 마음의 근력(strength)</p> <p>세상의 시선이 자신의 시선이 됨</p>	<p>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무능한 자신을 노려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내 방'에 있음</li> <li>■ 쉽 없이 돌아가는 불안한 생각으로 지침</li> <li>■ 도돌이표처럼 돌고 도는 생각에 간헐 죽음을 고민함</li> <li>■ 집에도 자신만의 심리적 공간이 없음</li> <li>■ 온라인 공간은 유일하게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곳</li> <li>■ 양날의 검이 된 온라인 세상</li> </ul>	<p>단힌 방에서 생각에 갇힘</p> <p>온라인 공간을 통해 단힌 방에서 나감</p>	<p>단힌 방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나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를 곱씹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함</li> <li>■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샘솟아 집중하기 어려움</li> <li>■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을 중단함</li> <li>■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음</li> <li>■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방향을 허용하는 마음을 가짐</li> <li>■ 잠깐 쉬려고 시작한 쉽이 끝나지 않아 두려움</li> <li>■ 지나간 시간이 나이에 대한 압박이 되어 돌아옴</li> <li>■ 시간이 갈수록 뒤처지는 것이 눈에 표가 남</li> <li>■ 답을 찾을 수 없는 시간들이 공백이 되고 있음</li> </ul>	<p>다른 시간을 사는 몸과 마음의 시차</p> <p>나이만큼의 공백의 시간</p>	<p>과거와 미래에 사느라 현재는 공백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과 소원해지면서 관계가 축소됨</li> <li>■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 관계가 협소해짐</li> <li>■ 예민해지는 것이 싫어서 홀로 있게 됨</li> <li>■ 가족들 틈에서도 소외감을 느낌</li> <li>■ 자신이 미덥지 못해 스스로를 의심함</li> <li>■ 홀로 지내면서 자기만의 방법과 무기를 만들어 감</li> </ul>	<p>자신을 지키고 싶어 홀로 외딴 섬이 됨</p>	<p>세상이 커질수록 벌어지는 틈</p>

표 3. 현상학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제 모음 (계속)

규명된 주제	본질적 주제	핵심 주제
■ 자신을 험하게 대하는 낯선 세상이 무서움		
■ 노력과 좋은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남	세상이	세상이
■ 마음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리감 있는 관계가 홀가분함	커지는 만큼	커질수록
■ 비교를 할수록 자신이 하염없이 작아짐	자신은	벌어지는
■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심술이 나고 보상심리가 들	하염없이	틈
■ 동료애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에서 안도감을 느낌	작아짐	
■ 돈에 맞춰 삶을 축소해서 살아감		
■ 돈과 꿈 사이에서 줄다리를 함	돈에	
■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흘러가듯 살기 싫음	자유하고	
■ 경험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싶지만	'나' 하나
■ 가볍게 시도하는 마음이 발걸음을 떼게 함	좌우되는	책임지기에
■ 갑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내야 하는 어른 노릇이 곤혹스러움	생활	턱없이
■ 부모에게 의존해 근근이 생활함		부족한
■ 심리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음	성인(adult)과	경제력
■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 없는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함	어른(adulting)의	
	경계	

까...대학도 떨어지고 재수학원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방송 편집 학원도 그만 두고 이번 학력인정과정도 그만두고...좀 더 스스로 위축되긴 하죠. 이제 다른 무언가를 해도 끝까지 완주를 할 자신도 없고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2)

참여자들이 무기력으로 쉬는 동안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불안한 고용 등이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오히려 외부활동의 제한이 더 좋거나 코로나의 상황적 어려움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어려움으로 쉼을 지속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나가게 되거나 더 제약을 받은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여서 다 같이 안 나가는 거라 사실 좀 더 좋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집에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좋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4)

(쉼 때 코로나가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수가 적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적게 나오니까 영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쉬는 게 더 영향이 크고 코로나 때문에 뭔가 일을 못하게 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참여자 6)

참여자들은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해 봐도 더 이상 어떤 것도 완주할 자신이 없어진다. 시작에 내포되어 있는 실패의 가능성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 시도 자체가 어렵다. 무엇인가 해보라는 말로 선불리 시도했다가 또다시 버터내지 못하고 실패할까 두려워 망설이느라 교육도 받지 않고 일도 안 하는 니트 상태로 계속 쉬고 있다.

저는 실패하는 게 두렵습니다...시도했다가 실패했으니까 그냥 제가 못해가지고 남은 게 없죠...뭔가 시작하기 무서워. 또 했다가 저번과 같이...그럼 어떡하지. 아~뭔가 하기 싫어. 이 하기 싫음을 실천 해야겠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참여자 1)

교육과정이나 노동현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버터지지 않는 몸’이다. 참여자들은 참으려고 해도 도저히 버터지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다른 사람은 쉬운데 자신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은 참고 하는 것을 자신은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 무능하게 여겨져 괴롭다.

아르바이트를 똑같이 하면서 똑같이 힘든데. 나는 못 버티겠는데 더 이상...어떻게 저렇게 버티지?...내가 재네보다 정신적으로 약한가?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체력이 약한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게으른 건가 그러다가도 그냥 태초에 설정부터 잘못된 건가.(참여자 6)

쉬면서 자연스럽게 밤낮이 뒤바뀌는 생활습관이 몸으로 굳어진 참여자들의 일상의 무력감은 미루는 습관을 더 발전시킨다. 그동안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어 지내온 것도 있지만, 이 습관을 더 발전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작 자체를 하지 못하는 망설임으로 보여진다.

저는 미룬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야 너 그냥 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저는 그냥 말문 막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이에요...좋게 말해서 미루고 있고, 나쁘게 말해서 무서우니까 영원히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뭐가 무서워요?) 무섭다 이것의 정의. 제가 아까 말한 시작하는 게 무섭다.(참여자 1)

소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실행력을 방해하는 미루는 습관을 바꿔보고 싶어 한다. 쉬면서 다시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일상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산책을 시작한다. 결국 몸이 버티는 건 마음의 힘인 것 같아서 마음의 근력도 키우고 싶다. 다시 시작할 때 ‘마음의 단단함’으로 버터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버틸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쉬는 동안에도 뭘 하게 되더라도 좀 정신적으로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그래서 쉬는 동안에 좀 많이 단련을 하고 싶어요.(참여자 6)

#### 세상의 시선이 자신의 시선이 됨

참여자들에게 대학은 그렇게 중요해보이지

않았다. 성적에 맞춰 아무 대학이나 가는 것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다. 성적에 맞춰 진학한 학교적응이 버거워 한 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를 선택할 때도 대학대신 하고 싶은 것을 해보면 될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던 대학이 지금 와서 뒤늦게 중요해보여도 입시를 다시 치를 자신이 없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바로 밴드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러면 될 것 같다...그때 당시에는 그 앞에 있는 것만 봤던 거죠...지금은 사실 가고 싶은데요...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기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은 제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말 그대로 못해서.(참여자 3)

연구 참여자들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했던 학력의 차이를 사회적 신분의 한계로 마주하게 된다. 고졸이라는 학력 외에 별다른 이력이나 자격이 없는 자신이 비교적 괜찮은 곳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구직을 단념하게 된다.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기 보다는 뭔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하고 싶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 조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하기 위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참여자 6)

연구 참여자들은 진학도 취업도 여의치 않아 보여 그냥 쉬고 있는 자신의 극히 개인적인 생애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어 이목이 쏠리는 것이 무섭다. 어느새 사람들이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백수가 되어 있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곱지 않은 눈초리가 느껴지고,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것 같아 숨고만 싶어진다.

사람들은 나를 한심하게 볼 것 같고 (두 팔을 들어 방패모양을 만들며) 괜히 방어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괜히 두렵고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방패막을 딱 들고 있고. 이렇게 막 어디 숨어 있고 약간 이런 거죠.(참여자 5)

니트 또는 백수라는 무리의 한 객체로 규정되고 있는 참여자들은 '세상에 비취진 자신을 보면서' 주체성을 잃어간다. 게으르게 지내고 있는 자신이 스스로 봐도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볼수록 세상이 보는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여서 본인의 '눈'에도 들지 않는다.

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조금 그냥 내가 이상한 것 같아...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더 많거든요...그래서 스스로를 좀 안정시키지 못하고 좀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6)

닫힌 방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나감

#### 닫힌 방에서 생각에 갇힘

교육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아 꼭 가야 할 장소가 없는 참여자들은 집에만 머물게 된

다. 많은 시간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가족들이 불편해져 '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머문다. 자신의 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참여자들의 머릿속은 오만가지 생각들이 오고 간다. 몸은 방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하느라 마음은 불안한 생각들로 분주해서 절대 쉬지 못한다.

이 니트 생활의 쉽 몸은 쉬는데 마음은 계속 안 쉬어요. 생각은 절대 못 쉬어요. 항상 뭔가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항상 들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먹고 살 궁리도 자주 하다 보니까 몸은 분명히 쉬고 있는데 마음은 절대 쉬고 있지 않아요. 생각이랑.(참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도돌이표처럼 들고 도는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쓸모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져, 마음이 많이 힘들 때면 더욱 부정적인 것에 파고들며 방안에서 죽음을 고민한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방에서 '생각의 감옥'에 갇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위기 가운데 혼자 있다.

좀 거기에 갇힌 느낌. 생각했던 어떤 문제에 스스로 갇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빠져나가기 어렵다...(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네. 그런 것 같아요...항상 죽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진짜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닌데, 항상 마음으로 그냥 죽고 싶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4)

집은 쉬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힘을 얻는 공간이지만, 참여자들은 다시 밖으로 나갈 힘을 얻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오랜 시간 같은 공간인 집에 머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집 밖으로 나가고 싶기도 하고, 집이 아닌 공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딱히 갈 곳이 없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나가지 않는 한 집에 있으면 항상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데 있고 하니까...지금 이 공간에 오래 있어봤는데 내가 뭔가 바꾸고 싶긴 한데 이 공간에 가만히 있어서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생각이 돌아오고 뭘 하다가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장소를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참여자 6)

#### 온라인 공간을 통해 닫힌 방에서 나감

연구 참여자들은 방 문 하나만 열면 가족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신의 방을 심리적으로 자신만의 공간은 아니라고 느낀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불편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참여자들에게 점차 '나만의 공간'이 되어 간다.

온라인이 그런 것 같아요. 독립한 공간. 가족으로부터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떨어져 나온. 그냥 방은 저만의 공간이 아닌 것 같다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뭔가 나만의 공간인 것 같은 느낌.(참여자 2)

세상을 피해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도 이 세상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참여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폐쇄적인 자신의 방에서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지 않은 타인과 함께 있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과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로 지내고, 온라인 공간을 산책하며 SNS로 타인의 삶을 보거나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보며 사이버 공간을 거닌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있어요. 만나게 된 계기도 인터넷이고요...그 사람이 대략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한테 되게 소중한겁니다.(참여자 1)

다른 날과 비슷하게 심심해서 들어간 온라인에서 우연히 발견한 '청년지원사업' 정보는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청년지원사업 참여는 모처럼 자신의 방을 나가 외출을 할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자신이 머물 공간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바꾸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바꾸기 힘들었던 무너진 일상의 루틴을 외출을 하며 천천히 다시 되돌려본다.

우연히 인스타그램 하다가 광고가 떠서 마침 신청하는 때여서 하게 됐어요...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걸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루틴을 잡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하는 일이 따로 없는데도 아무리 늦게 자도 한 2~3시쯤에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은 12시 전에 무조건 일어나고.(참여자 6)

한편, 자신만의 공간인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참여자들은 현실에서 해야 할 것들을 자꾸 미루게 되고, 온라인 공간이 취미를 넘어서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현생(現生)이 고통스러워도 망쳐 들어가지만, 다시 밖으로 나올 때면 또 다른 눈치가 보여 그만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되어 있다.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한 서너 시간 기본으로 훌쩍 가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놓치는 느낌이고. 뭔가 계속 지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속하는 느낌이고...실행력의 발목을 잡아가고 떼어냈지만 또 뺄 수는 없는.(참여자 5)

과거와 미래에 사느라 현재는 공백이 됨

#### 다른 시간을 사는 몸과 마음의 시차

연구 참여자들의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를 자책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느라 현재 해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이렇게 쉬고 있는 '현재적 과거'의 의미를 갖는다. 있지도 않아 실재하지 않는 미래의 실패는 '미리 현재화'되어 고통을 살아가고 있다(pain-as-lived).

후회. 그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했으면 또 어땠을까. 결과가 달라졌을까...상황을 돌려보는 거예요.. 상황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는데 스스로한테 좀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자책...맨날 불안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 딴 생각을 하고. 뭔가

그 본질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소수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지금과 같은 니트 상태라고 이야기 한다.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두렵고, 지금과 같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씬을 끝내고 싶어서 벗어날 방법을 고심한다.

지금은 편안하긴 한데 나중에는 절대! 지금이고 싶지 않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요?) 네네. 지금 이 모습이 좀 힘들긴 하지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단호한 목소리로) 절대 안 변하면 안 돼요.(참여자 5)

반면, 다른 소수의 참여자들은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이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해보여 미래를 기대하는 것 자체를 중단하고 있다. 미래에 자신이 희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어 더 막막하고 불안하다. 비슷하게 쉬고 있지만 참여자들은 미래의 자신을 기대하는 것에 차이를 보인다.

돈 많은 백수요...불가능한 걸 꿈꾸죠. 제가 지금 목적이 없잖아요.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요...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뭔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을까요.(참여자 1)

미래의 자신이 현재와 다르기를 바라는 소수의 참여자들은 현재의 시간에 각자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진술한다. 지금의 자신을 위해 과거를 과거로 두기로 결정하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잘 정리하려고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현재를 지연시키지 않고,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똑같이 돌아갔어도 그 선택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그때는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랬으니까. 그때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조금 마음이 덜어진 것 같아요...(지금) 그냥 다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참여자 6)

#### 나이만큼의 공백의 시간

쉬면서 너무 빠르게만 흘러간 시간들이 참여자들에게 부메랑처럼 나이에 대한 압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자신의 '사회적 나이'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참여자들은 압박감과 초조함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 2와 5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쉬고 있는 답답함을 느낀다. 노동의 현장에서 별다른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22살의 어린 자신을 발견한다. 청년이라는 범주 속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력자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감에 얼어버리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뭔가 장벽이 높아 보여 가지고 기대가 별로 안 되는데. 일단은 나이가 되니까 해본다 라는 심정으로 자소서 쓰고 시놉시스 써서 냈거든요. (장벽이 왜 높은 것 같아요?)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을 보는 건데 대부분 25세 이상인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분들은 저보다도 글을 많이 써왔고, 공연을 업으로 삼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참여자 5)

20대 중반의 참여자 3과 6은 친구들이 대학 졸업을 앞둔 나이가 되면서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심리적으로 학생신분의 나이로 살아온 자신도 친구들처럼 사회에 본격적으로 나가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다. 서서히 부모로부터 독립도 해야 할 나이에 계속 쉬면서 무능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까봐 초조해진다.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내가 맘 놓고 쉬어도 되는 그게 지나는 것 같다...이제 사회에 나가야 할 나이인데 계속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가?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무능력해서라고 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더 많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참여자 6)

26살의 참여자 1과 참여자 4는 '지나간 세월' 자체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세상도 자신에게 질문할 것 같지만, 스스로도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6년의 세월동안 고등학교 졸업 이외에 이력서에 넣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백'이 민망함을 넘어 무섭다.

그 세월도 저를 누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길다보니까. 나도 내가 봤을 때 그렇고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이상하네 약간 그럴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좀 민감하게 더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그냥 이력서에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넌 지금까지 되도록 뭐 했어? 이런 느낌.(참여자 4)

참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비슷비슷했던 친구들에 비해 자신이 뒤처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이에 맞게 사회에 나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가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할수록 자신은 아무것도 없어 점점 더 두려워진다. 자신의 진로(進路)를 찾고 싶어 시작한 쉼이 지속되면서 퇴로(退路)까지 막힐 것 같아 불안하다. 정답은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속도와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잃어간다.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어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알 수 없는 공백의 시간만 나이만큼 늘어가고 있다.

손해가 없지는 않겠죠. 나이를 먹고 이력서에 공백이 있잖아요...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긴 했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고 실천되고 있다면, 제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있잖아요.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도 계속 버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낡고 있죠. 낡아가고 있죠.(참여자 1)

세상이 커질수록 벌어지는 틈

#### 자신을 지키고 싶어 홀로 외판섬이 됨

연구 참여자들이 쉬면서 삶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관계이다. 졸업 후 소원해진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게 되거나, 쉬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볼까 싶은 두려움에 새로운 만남을 피하게 된다. 이런 상황적 조건에 놓인

참여자들은 대인 관계가 축소되고 협소해지는 변화를 경험한다.

쉽이 시작된 계기가 고등학교 졸업 후니까 어중간하게 친했던 친구들은 연락을 안 하게 됐고...새롭게 관계가 발전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좀 두려워요 제 얘기하기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밝히지않아요...니트가 무서운 게 약간 사람 만나기가 싫어진다 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참여자 5)

대인 관계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채로 집에만 머물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가족은 거의 유일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부모에게 따뜻한 공감의 말을 듣고 싶어서 힘든 마음을 이야기 하지만,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해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집에서도 연결감을 느끼지 못한 채 '혼자' 있다.

불안한 감정이 들거나 그러면 그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감정적인 면에서는 서로 공감을 주고받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이야기를 듣다보니 집에 있어도 외로우실 것 같네요.) 그렇죠. 집에서 관계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으니까.(참여자 6)

참여자들은 친구들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성장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 부러움에 질투심이 생기고, 뒤쳐진 채 지내고 있는 자신이 불품없어 보여 자격지심도 생긴다. 고민을 이야기하는 친구의 처지가 자신보다 훨씬 나아보여서 친구의 이야기를 꼬아서 듣고

있는 자신이 친구로서 미안해지기도 한다. 마음 한편으로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억울함에 친구들보다 더 빨리 성공해서 보상받고 싶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친구들과 자신을 자연스레 비교하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어 점점 만남을 피한다.

친구가 힘들다고 할 때 나는 너보다 더 힘든데. 그런 마음이...억울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남들보다 힘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빨리 뛴다면 좋겠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개인내적인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발달단계상 자기 결정적 시기로 선택의 기로에 있지만, 참여자들은 자신감이 사라진 자기회의로 자신이 미답지 못해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하며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많이 흔들립니다. 자기 주관적이지 않아요. 많이 흔들린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자신감이 없는 게 니트 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주죠. 자신감이 있어서 변화시켜야지 하면 딱 변화시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겠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뭘까? 라는 의문을 굳이 제기해서 안 하잖아요.(참여자 1)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내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있는 참여자들은 쉬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외로운 시간 속에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자기 자신과 관계가 생기면서 타인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보며 '나' 자체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

나를 이렇게 막 옥여넣지 않고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맞지 않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맞아지거나, 내가 버틸 수 있게 되거나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덜 힘들게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고.(참여자 6)

#### 세상이 커지는 만큼 자신은 하염없이 작아짐

연구 참여자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좋지 못했던 일 경험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감이 사라져 한없이 작아진다. 서비스적이든 노동적이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대신 자신이 선호하는 일인 작가나 뮤지션을 직업으로 삼아 돈을 벌고 싶었다. 열정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해봐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배신감과 자신의 생각처럼 세상이 만만치 않아 더 작아진다.

결과가 없다는 게 조금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음약하고 있다 이런 말만 하고 사실 결과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

까...(작게 웃으며) 그냥 나름 치열은 했다...되게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계속 그것만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죽어가는 거 같아서.(참여자 2)

참여자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수록 위축되고, 자신에게 경쟁력이 없어 보여 열등감과 질투심이 생겨 괴롭다. 이런 이유로 가까워질수록 비교하게 되는 가까운 관계보다 잘 알지 못하는 거리감 있는 관계가 점점 편해진다. 느슨한 소속감을 갖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서지만, 또 다른 비교로 위축된다. 니트청년지원사업인 '니트컴퍼니'에 참여했던 소수의 참여자들은 거리감 있는 관계에서 편안함도 느끼지만, '대졸' 니트와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고졸' 니트인 자신이 더 부족한 것 같아 이곳에서조차 부족함이 느껴진다.

오히려 좀 거리감이 있어서 더 편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근데 보통은 거의 대졸 니트였으니까...니트 안에서든 이게 정상적인 니트인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같이 쉬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상황인 것 같다...비교가 되고 하면서, 스스로한테 자꾸 못 났다고 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자격지심 같은 게 좀 생기기도 하고.(참여자 6)

한없이 커 보이는 세상의 벽 앞에서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작아진 채 고립되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가 아닌 상호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른'을 찾아간다. 신뢰가 쌓인 교사나 상담사 등을 찾아가 자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며 정서적 지지를 얻거나, 사회지지체계의 관계망 속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이런 사회적지지와 조력의 연대는 참여자들에게 경쟁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 되고 있다.

소속감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결여돼 있고. 그 안에 어쨌든 내가 포함이 되네 하는 그런 걸 경험을 하고...공백기 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도 많고 그랬는데...서로 격려를 해주고...뭘 하든지 의지가 되도록 다독여주고. 한심하게 보지 않고, 서로 힘이 돼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참여자 6)

‘나’ 하나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제적

#### 돈에 자유하고 싶지만 좌우되는 생활

비경제활동 상태로 지내는 참여자들은 돈이 넉넉하지 않다. 자신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삶을 축소시키며 통장에 남은 잔액을 확인하게 된다. 참여자들이 쉬면서 사회적 관계가 협소해지는 이유 중의 하나도 돈 때문이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약속도 잡지 않고, 잡힌 약속도 자꾸 미뤄서 만남을 줄인다.

돈이 없다보니까 좀 더 더 집에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밖에 나가면 다 돈 이니까...친구 만날 돈이 없다보니까 그냥 안 만나게 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친구가 만나자는 걸 미루고.(참여자 4)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참여자들에게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미활동이 아닌 이상 자신이 만든 결과물들이 경제적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돈이 되지 않는 일이나 하면서 그냥 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돈을 생각하게 된다. 단순히 돈만 보고 일하며 흘러가는 대로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되기 싫어 ‘꿈’을 찾지만, 정작 돈이 없어 불행한 것 같아 모순되고 혼란스럽다.

그냥 흘러가기는 너무 싫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원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뭘 비교하게 돼요?) 안정감. 보통 생각하는 돈의 단위가 다를 때. 나한테 비싼 게 재한테 적당하다가 될 때...돈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참여자 3)

돈이 중요해진 참여자들은 돈이 들어가는 ‘경험’에 인색하다. 한정되어 있는 돈을 투자했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도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 참여자들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주위에서는 무엇이라도 시도해보라고 하지만, 돈이 낭비될 바에는 그냥 쉬는 것이 이익인 것 같다. ‘실패도 나중에는 좋은 경험이 된다’는 말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부족한 ‘돈’ 대신 남아도는 ‘시간’ 낭비를 택한다.

돈으로 자꾸 환산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들여서 이게 하고 싶나. 이 돈을 들여서 이걸 하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을까.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생각하다보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과정이 그렇게 되더라고요...경험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가 깊이 와 닿지가 않으니까.(참여자 6)

돈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지내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은 부담 없이 한번쯤 시작해보만한 시도들이 되고 있다.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게 된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부딪혀 알게 된 좋은 경험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발걸음을 떼게 한다.

그냥 시작하는 거 좀 무서워했는데 해 보니까 다 별거 없었지 이런.(경험해 보니까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이. 용기가 조금 채워진 것 같아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몸으로 부딪혀서 해봐서 알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던 최악의 상황은 안 오는구나. (참여자 3)

### 성인(adult)과 어른(adulting)의 경계

참여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마주하게 되는 급격한 변화의 하나로 성인이 된 자신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경험한다. 성인(adult)의 나이로 많은 자격

들이 주어지지만 성숙하게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고 사는 어른(adulting)은 아닌 것 같다. 점점 자신의 삶을 묵묵히 책임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새삼 대단해보인다.

학생 때는 사실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기만 하면 돈은 나오니까. 용돈 나오고, 사고 싶은 거 있다고 그러면 사주시고 사실 걱정할 게 돈은 아예 아예 없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어른은) 본인을 책임지고 사는 거니까. 그 자체가 좀 대단한 거 같아요.(참여자 3)

부모와 함께 사는 참여자들은 의식주의 해결로 자신이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함이나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부모에게 의존적인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게 홀로서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자신의 생활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떳떳치 않다.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싶지만, 잘 버텨내지 못하는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 보여서 홀로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만큼 불안해진다.

언젠가는 돈을 스스로 벌고, 독립도 해야 되고 그러고 싶은데. 가망이 안 보여서...약간 불안함, 압박감 이런 거. (어떤 불안이고 압박인가요?) 내가 이렇게 못 버티고 도망가는데. 나중에 혼자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을까.(참여자 5)

경제적 자립이 지연되고 있는 참여자들은 여전히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냥 쉬

고만 있는 자신에게 지금까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상태가 더 지속된다면 부모가 언제까지 자신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를 불안을 경험한다. 고교 졸업 이후 사회적 역할 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 자신이 부모에게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어린 자녀’로만 자리 매김하게 될까 걱정이 생긴다.

집에 너무 계속 있으니까 뭔가 자식으로서의 모습이 더 많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 뭔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 애는 이런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하는 그게 있는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보다 더 들었는데 계속 그런 관계 일까봐.(참여 6)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싫어서 무료 강이나 독학으로 배움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이다. 자신이 선호하는 일을 직업으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교육과정이 꼭 필요한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돈이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참여해볼 수 있는 지원사업을 찾게 된다. 부모의 투자가 들어갔으니 꼭 그 길로 가야한다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경험 자체에 도전해볼 수 있는 국가지원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부모의)투자인데 내가 저버렸다는 느낌...저를 위해 써주신 것들을 땅에 버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쓴 돈 조차 제가 낸

돈이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한건가요?) 운 좋게 그거였던 거긴 한데. 그런 거여서 더 좋을 것 같긴 해요.(참여 2)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으로 고졸 니트 청년의 ‘쉽’이 어떤 현상으로 경험되고 있는지 경험의 본질을 기술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고졸 니트 청년의 ‘쉽’의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상담학적 의미를 연구문제와 함께 종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잃어버린 몸의 기력으로 쉽을 시작하고 고졸 니트 청년은 부족한 마음의 근력으로 쉽을 지속하고 있다. 고졸 니트 청년의 체험된 신체(Lived of Body)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무능한 자신을 노려봄으로 드러났다. 고교 졸업 이후 반복된 실패로 심신이 지쳐 잠시 쉬려고 시작했던 쉽이 기한 없이 지속되며 장시간 니트 상태로 지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쉽’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자 갖는 휴식의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정이 없는 빈 하루의 시간들을 생산적인 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며, 몸은 편안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돌아가는 불안한 잠넬들로 정신적 피로를 느낀다. 하루하루 ‘그냥 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흘러가기만 하는 권태로운 일상이 게으른 생활습관과 함께 참여자들을 더욱 무력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일어설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경험하고 있다. 대학 입시 실패 후 다른 교육 과정을 시작해도 또 다른 중단으로 이어지고, 간단한 아르바이트 일도 잘 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을 마주한 채 심리적 고통 가운데 씬을 지속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에 자신의 고졸이라는 학력이 한계로 경험되는 참여자들은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었으면 일은 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에 뒤늦게 대학진학을 고민해보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것 같아 진학도 단념하고 쉬게 된다. 이는 니트 상태로 지내는 하나의 큰 원인을 과거 진로지도의 실패나 무분별한 스펙위주의 취업진로교육시스템의 문제 또는 자신의 전공 학습으로 적절한 일자리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사회 문제'로 연결 짓는 대졸 니트(한연희, 2015)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에 같은 니트 상태에 있을지라도 고졸 니트 청년과 대졸 니트 청년의 니트 상태 진입 과정과 지속요인에 상이함이 보여 진다.

성취지향적인 한국 사회에서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이 쓸모없고 불품없어 보여 수치심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세상이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무능한 자신을 노려보며, 부정적 평가와 싸늘한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부끄러움이나 자의식의 결과 느낄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고, 타인의 시선 앞에서 비합리적인 공포심을 갖는 불안을 정신의학 진단체계에서는 사회불안(social anxiety)으로 명명하고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을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불안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일생동안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정, 2015). 니트 상태에 있는 자신을 사람들이 나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며,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을 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 역시 사회불안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과도기시기에 사회불안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후 학업이나 진로, 사회 적응에 매우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여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는 사회불안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함이 시사된다. 연구 참여자들에는 청년 니트를 사회문제로 주목하며 낙오와 탈락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높이기보다 니트 청년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불안을 도울 수 있는 상담 및 집단상담의 지원은 니트 청년이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유대감을 형성시켜 사회성의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비구직 니트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구축과 함께 니트 청년을 만나는 실무자들의 니트의 이질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또한 중요하겠다. 실무자들의 니트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사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노혜진 외, 2018)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고졸 니트 청년의 체험된 시간(Lived of Time)은 과거와 미래에 사느라 현재는 공백이 됨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쉬면서 많은 시간을 과거의 선택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와 자책을 하거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견하며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고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를 곱씹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다른 시간을 사는 몸과 마음의 시차는 나이만큼의 공백의 시간을 만들고 있다. 반복된 실패로 잃어버린 자신감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자기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것이 쉽이 지속되는 이유이다.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자신감은 주관적으로 스스로의 선택과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아의 힘으로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니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지만, 낮은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으로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처럼 실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스스로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는 곤경에 빠져 ‘회피하기로 선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신감 상실로 인한 자기신뢰의 부족이 자신의 능력적 측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자율적인 선택을 유보하게 되는 것이 니트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실업 청년의 자신감 상실이 니트 청년이 겪는 큰 심리적 어려움이라는 연구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해준다(강문선 외, 2019). 불확실함의 불안을 자기 확신으로 조절하고 다루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단시간에 사회적 이행을 재촉하는 것은 버거워 보인다. 이들에게는 아주 작더라도 ‘성취경험’이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볼 만한 자신감과 끈기(Grit)를 키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활력 상태로 변화되기까지 3년 이상의 중·장기 프로젝트의 수행이 효과적이라는 비구직 니트 청년 지원사업의 연구보고(박미희, 2019)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셋째, 고졸 니트 청년의 체험된 공간(Lived of Space)은 닫힌 방에서 온라인 세상으로 나감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밖 청년’인 니트 상태로 자신이 존재할 사회적 장소를 상실한 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자신의 방문을 닫고 들어가 쉽 없이 돌아가는 불안한 생각에 갇혀 지내고 있다. 대학생도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학생도 취업준비생도 아닌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는 난처함과 세상 어디에 자신이 속해 있는지 알 수 없는 소외를 경험한다. 소속감이 없는 사회적 소외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외로움을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참여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니트컴퍼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닫힌 방에서 나간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졸 니트가 모여 있는 니트 커뮤니티에서 고졸 니트로서, 니트라는 유대감보다는 고졸 니트로서 심리적 위축과 불편함 등 다른 형태의 소외를 경험한다.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은 개인이 사회집단에 소속됨으로 생기는 자아개념의 일부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정서적 유대를 갖게 되는 것으로 집단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이규현, 2000). 니트의 내부 이질성에 기반 한 세분화 및 유형화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이로미 외, 2010), 정작 ‘고졸 니트’의 실체를 확인하는 접근은 부재하다. 또한, 청년 니트와 관련된 담론과 정책이 생성되고 있으나, 고졸 비구직 니트가 처해있는 사회적 소외와 고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니트 단일’ 정책적 접근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니트 내 다양한 이질성과 고졸 니트가 갖는 사회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상으로 세분화 되어 접근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청년실업자 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강문선 외, 2019)에 따르면, 비구직 니트 청년은 실제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기조차 없을 만큼 취약한 심리적 어려움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졸 비진학 청년은 대졸 청년 참여자들과 필요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다르고 원하는 진로 탐색 및 상담,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다르다(김영민 외, 2019). 오랜 고립생활로 인한 정보의 부족과 빈약해진 사회관계가 이후에도 개인의 만성적인 취약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에게 실효성이 강화된 통합적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 니트 내 이질성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고 사회적 정체감을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에서 병행될 수 있는 개별맞춤형상담강화,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촘촘하고도 세밀한 지원 노력이 필요하겠다.

넷째, 고졸 니트 청년의 체험된 관계(Lived of Relationship)는 세상이 커질수록 벌어지는 틈으로 드러났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위축되고, 세상이 커지는 만큼 자신은 하염없이 작아진다. 한없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지키고 싶어 홀로 외딴섬이 되어 지내면서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는 '고립'의 상태가 된다. 사회적 역할과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발달시켜야 하는 발달단계에

있는 참여자들은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역할이나 다양한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는 환경적 요청에 조화롭게 순응하지 못하는 부적응 상태에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그나마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편견 없이 대해 주고, 자신의 부적응적인 모습도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믿음만하다고 생각하는 '어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이처럼 공감적으로 반응해주는 의미 있는 대상의 중요함을 Heinz Kohut은 자기대상(self-object)의 필요성으로 강조하였다. 자기대상은 스스로 구체화할 수 없는 자기 경험과 스스로 실행할 수 없는 심리적 기능을 대신 조직화해주는 대리자 역할을 한다(Kohut, 1978). 멘토 또는 톨모델이 되어 주는 의미 있는 대상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건장한 자기(self)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자기대상경험의 좋은 역할이 되고 있다. 참여자들의 '자기대상'으로서 '좋은 관계경험'은 좋은 대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김태사, 안명희, 2013). Kohut이 이야기한 쌍둥이 자기대상기능은 자신이 타인과 유사하다는 느낌으로 관계 안에 있고 싶은 소속감, 타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받고 싶은 안도감을 충족시켜준다. 쌍둥이 자기대상의 욕구충족은 자기(self)가 소속감과 연결감을 느끼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재능과 자질, 목표를 이해받고 수용 받아 강화시킬 수 있게 한다.

누군가를 모방하여 자기를 그 대상과 동일시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야 하는 발달단계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제적 대상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니트 청년을 지원한 사업의 성과를 살펴본 연구(이봉주 외, 2018)에서도 지원한 프로그램들 중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니트 청년에게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연한 형식과 내용의 포괄성으로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공유해나갈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은 이질적 특성을 보이는 니트 청년들의 특성을 감안한 개별 맞춤형지원으로서 유용한 개입이 될 것이다. 특히 정서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지원 멘토링은 고졸 니트 청년의 사회적 소외감, 박탈감, 열등감, 실패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역할모델의 자기대상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고졸 니트 청년들의 체험된 사물(Lived of Materiality)은 '나' 하나 책임지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제력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쉬고 있지만, 돈에 자유하기보다 좌우되고 있다. 성인(adult)이 되어 갑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어른(adulthood)의 역할이 버겁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립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 경제적 자립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클수록 정체성 유예 현상은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준석, 김현주, 2016). 의존적인 초기 성인기를 보내고 있는 참여자들 또한 니트 상태가 장기화 될수록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래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인의 자기체계 내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는 자신의 잠재능력과 미래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지에 대한 생각과 동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이지연, 2006). Markus와 Nuriu(1986)가 제시한 '가능한 자기'는 개인이 되고 싶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희망하는 가능한 자기(expected selves)'와 자신이 되기를 꺼리는 '두려운 가능한 자기(feared selves)'의 모습이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두려운 모습이 희망하는 자기를 더 강하게 지각하게 할 수도 있고, 미래의 두려운 자기가 변화의 동기(incentive)로 작용할 수 있다. Oyserman와 Markus(1990)는 희망하는 가능한 자기는 두려워하는 자기에 의해 균형이 맞춰질 때 최대의 동기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소수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경제활동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기' 원하는 자신의 희망하는 자기(expected selves)와 가장 동떨어진 니트 상태로 있는 자신이 '미래에도 쉬고 있을까 두려워(feared selves)' 새로운 시도를 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반면 장기간 니트 상태로 지내고 있는 소수의 참여자들에게는 변화의 동기로 작용하기보다는 압도되는 두려움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돈도 못 벌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고 있을 것' 같은 쓸모없고 가능성이 없는 부정적 자기개념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미래의 목표를 세우고 직업세계로 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다. 실패가 있었지만 자신의 미래에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동기가 되어 니트 상태의 씬을 중단하고 나갈 것인지, 자신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미래를 단념하고 니트 상태에 머무를 것인지를 기로에 서 있다. 이처럼 자신의 경제적 자립 전망을 바라보는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는 씬의 중단 여부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낮은 경제적 자립 전망은 '고립'을 넘어 '은둔'의 상태로 이어질 위험성으로 제기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상 '쉬었음'에 해당되는 공백의 시간을 20대초중반의 고졸 니트 청년의 개인적 역량과 그들의 부모, 가족들의 한정된 자원에만 의존해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진로 탐색에 필요한 지식과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지지망(social network)과 외부 지지자원이 필요하다. 니트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자립의 발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등 프로젝트 성격의 일시적인 지원보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입할 수 있는 당사자 중심의 연속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들이 이들의 역량을 갖추고 향상시킬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성인 이행기 지원을 한 가정의 어려움으로 감당하고 있는 니트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쉬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사람들의 속도와 다른 자기만의 속도와 방향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 것이 쉽을 통해 자신이 얻은 가장 든든한 '심리적 무기'라고 이야기한다.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을 통해 얻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더불어 니트 상태로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찾아가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진학이나 취업을 유예한 채 지속하고 있는 '쉽'의 시간이 한편으로는 도리어 연구 참여자들의 자기인식의 확대와 미비했던 진로의식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되

고 있다. 이후의 삶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상담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self)를 확인하며, 자신에 대한 내적 물음으로 이전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보다 나은 의미를 구성해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은 고졸 니트 청년에게 중요한 지지자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오랜 시간을 비구직 니트 상태로 고립되어 지내고 있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쉬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해 가는데 심리상담은 효과적인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키워나가하고자 하는 니트 청년에게 상담을 통한 자기이해의 확장과 의미의 재구성은 사회적 지지와 지원이 효과적인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사료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니트 상태로 지내고 있는 고졸 니트 청년의 쉽 경험을 과정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니트의 이질적 요인인 학력을 고려하여 고졸 니트 청년을 단독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현장에서 발굴조차 쉽지 않아 개별적 접근이 어려운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는 선행연구 결과의 일반화로는 밝혀낼 수 없었던 고졸 니트 청년이 니트 상태인 쉽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쉬면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쉽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지 고졸 니트 청년의 생생한 주관적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반영하여 '쉽'의 체험적 의미를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의 실존체로 해석하여 기술함으

로써, 니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인 요소를 밝혀냈다는 점이다. 이는 니트 청년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 니트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정책은 주로 대졸 구직 니트 대상의 취업에 중심을 두거나 노동시장에 지원하고 참여할 의지가 있고 상황이 가능한 구직 니트 위주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교 졸업 후 비교적 어린 나이에 비구직 니트 상태로 장기간 니트 상태의 씬을 경험하고 있는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에게 맞는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과 접근의 필요성, 고졸 니트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밝혀냈다. 이는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에게 맞는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적 심리지원서비스와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을 통해 선정된 20대 고졸 비구직 니트 청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과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청년의 연령대별로 니트 지속 기간에 따른 상이한 경험은 어떠한지 보다 전반적이고 세분화된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니트 청년에 대한 후속 연구의 수행을 제안한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따른 비교연구를 제안해 본다. 더불어, 니트 상태의 지속 기간에 따른 비구직 장기 니트와 단기 니트 집단의 정신건강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문선, 이영순, 권혁철 (2019). 청년실업자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 *지역과 세계*, 43(3), 179-207.
- 금재호, 전용일, 조준모 (2007). 한국형 니트 (NEET) 개념을 통한 한국형 청년실업의 경제학적 고찰.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KLI 패널 워킹페이퍼*, 8(8), 1-27.
- 김범식, 장윤희 (2020). 서울시 니트의 특성 분석. *서울도시연구*, 21(1), 111-128.
- 김영미, 김진경, 윤민중 (2018). 일반고 청소년의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교육문화연구*, 24(4), 455-474.
- 김영민, 김민주, 서고은, 이슬, 장지혜 (2019). 비진학청년 사회진입 지원 방안 모색.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 김옥진 (2007). 여가와 노동의 선순환. *동양사회사상*, 16, 237-262.
- 김유선 (2017).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노동사회*, 197, 52-77.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NEET)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2017(4), 97-110.
- 김지경, 이광호, 김종성 (2013).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고졸 비진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윤미 (2015).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비진학 사유 및 비진학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2),

- 193-217.
- 김태사, 안명희 (2013). 불안정 성인애착이 심리적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대상과 정신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53-871.
- 김효정, 김봉환 (2011). 청년구직자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85-810.
- 김희성 (2022). 4년제 대졸자의 청년니트(NEET)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경험 변인 분석. *고등교육*, 5(1), 27-50.
- 남재량 (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40-157.
- 남재량 (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노동리뷰*, 2012(4), 39-54.
- 노현주, 김윤태 (2019). 한국 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 요인: 학력 수준별 비교 분석. *공공사회연구*, 9(4), 73-105.
- 노혜진, 이봉주, 박미희, 박호준 (2018). 청년 니트(NEET)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경험. *사회복지연구*, 49(2), 125-157.
- 노혜진, 남기철, 박미희, 이봉주, 이성학, 이신혜 (2019). 희망플랜(니트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변화과정.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1(3), 1-33.
- 박미희 (2017). OECD 국가의 청년 NEET 결정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희 (2019). 비구직 니트(NEET) 청년 지원 사업.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 박분희, 윤미선, 전향신, 이미라, 박세정 (2017). Adler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장기 미취업 청년을 위한 회복탄력성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연구*, 36(3), 125-147.
- 박화춘, 문승태 (2022). 대학 졸업자가 인지하는 진로장벽이 니트에 미치는 영향. *성인계속교육연구*, 13(3), 29-57.
- 유혜령 (2014). 현상학적 글쓰기: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살아나는 공간 만들기. *교육인류학연구*, 17(4), 1-34
- 이규현 (2000). 사회정체감이론의 소비자행동 연구에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10, 283-308.
- 이금진, 박재철 (2017). 장애청년 니트(NEET)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8(1), 131-151.
-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청년 NEET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구직 희망자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3(1), 153-175.
- 이민서, 김사현 (2021). 청년 니트(NEET) 변화 유형 비교-4년제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2), 71-101.
- 이봉주, 박미희, 남기철, 노혜진, 이신혜, 이성학 (2018). 니트(NEET) 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플랜 사업'. 사랑의열매.
- 이준석, 김현주 (2016). 경제적 자립전망과 자아정체성 유예가 대학생의 직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3(1), 169-194.
- 이지연 (2006). 한국 대학생들의 가능한 자기(Possible Selves)의 질적 분석: 기대하는 자기와 두려운 자기. *상담학연구*, 7(4), 1055-1070.
- 정연순, 박가열, 오민홍, 이로미, 장지은, 김은영 (2008). 한국형 니트 취업지원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정재현 (2022). 청년 NEET 특성 및 유형 분석.

- 고용이슈, 여름호, 32-54.
- 조한혜정 (2014). 비진학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최술 (2023). 청년 니트(NEET)의 자립경험에 관한 일의 교육적 의미 탐색.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한연희 (2015). 대학 졸업 니트족(NEET)의 개인 경험적 특성과 사회제도적 함의.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 Creswell, J. W. (2018). 질적 연구방법론 (조홍식 외 역). 학지사. (원본 출판 2015년).
- Dukes, S. (1984).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in the human science.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3(3), 197-203.
- Kohut, H. (1978). *Letters in the search for the self*, vol. 2. In P. Omstein (Ed.).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Markus, H., & Nurius, P. (1986). Possible selves. *American Psychologist*, 41, 954-969
- OECD. (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 Oyserman, D., & Markus, M. (1990). Possible selves in balance: Implications for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46(2), 141-157.
- Polkinghorne,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Plenum.
- Smith, J. A., Flowers, P., & Larkin, M. (2009).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ory, method and research*. Sage.
- The Social Exclusion Unit. (1999). *Bridging the gap: new opportunities for 16-18 year old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Stationery Office.
- Van Manen, M. (1994). 체험연구 (신경림, 안규남 역). 동녘. (원본 출판 1990년).
- Van Manen, M. (2000). Moral language and pedagogical experienc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2), 315-327.
- Van Manen, M. (2014). *Phenomenology of practice: Meaning-given methods in phenomenological research and writing*. Left Coast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24. 04. 08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6. 27

게재결정일 : 2024. 08. 02

## A Hermeneutic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Taking a Break’ among High School Graduate NEETs

Yun-young Baek

Ji-seon Hong

Baekseok University

Ph.D.

Assistant Professor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taking a break’ among high school graduate NEETs who are simply resting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To this end, six non-job-seeking high school graduate NEETs in their 20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ree in-depth interviews. By applying van Manen’s hermeneutic phenomenology method, the study interpreted the in-depth, layered meanings based on the five existential pillars of the lived experiences: body, space, time, relations, materia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Glaring at Myself Collapsing Spiritlessly in a State of Incompetence,’ ‘Stepping Out of a Closed Room into the Online World,’ ‘Present Turned into a Void to Live in the Past and Future,’ ‘A Widening Gap as the World I Live in Becomes Larger,’ ‘Lacking the Financial Ability to Make a Living for Myself.’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supporting and counseling high school graduate NEETs.

*Key words* : Youth, NEET, high school graduate NEETs, taking a break, Hermeneutic Phenomenology